

근대시기 일본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시선 -일본사회의 담론과 교과서의 한국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The Japanese View to Korea in Early Modern Era

-Focusing on Discourse in Japanese Society and Korea-related Contents in Textbooks-

박소영*, 정예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주한라대학교**

So-Young Park(parksy@aks.ac.kr)*, Ye-Sil Jung(jys0567@chu.ac.kr)**

요약

이 글은 근대시기 일본의 한국인식을 당대의 한국 담론과 교과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민족성, 역사인식, 한국의 사회상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교육 잡지를 중심으로 각 주제에 관해 형성되었던 담론과 이들 담론들이 투영된 교과서·교사용 지도서의 서술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민족성에 관해서는 나태·무기력·미개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부정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역사를 수동적, 타율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무능한 국가운영으로 인해 부정적 민족성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독립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한국은 일본과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이며 결국은 한일강제병합에 이르렀다는 것이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이다. 또한, 일본이 한국사회를 평가하는 척도는 서구식 문명화였으며 한국사회의 모습을 문명·문화의 정도가 낮은 전근대적 사회로 규정하고 있었다. 근대시기 일본에서 형성된 한국에 대한 담론에는 근대국가로 탈바꿈한 일본의 자신감과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된 일본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담론은 교과서와 지도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확산되고 있었다.

■ 중심어 : | 한국담론 | 교과서 | 교사용 지도서 | 교육 잡지 |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 한국인식 |

Abstract

This study looked into Japan's recognition of Korea in early modern era with particular focuses on discourse on Korea and contents in textbooks in those days. In doing so, the topics of nationality, historical recognition, and social aspects in Korea were established and discourse on these topics in educational journals and the contents of textbooks and teaching manuals projected with such discourse were investigated. As for nationality, a strong propensity to negative recognition was clearly observed, represented by the words lazy, enervate, and uncivilized. They defined Korea's history of passive, other-directed nature and described such incompetent national management resulted in negative nationality. Their recognition of Korean history went further away, stating Korea was incapable of maintaining its independence and was a threat to peace of Japan and Asia, hence the forced merger by Japan. The criteria for Japan to assess Korean society were Western civilization and they defined Korean society as a pre-modern society with lower levels of civilization and culture. Discourse in Japan over Korea in early modern era were strongly influenced by Japan's pride as a modern state and its dominating ideology of imperialism and such discussions were spread among students through textbooks and teaching manuals.

■ keyword : | Discourse on Korea | Textbooks | Teaching Manual | Educational Journal | Imperialism Ideology | Recognition of Korea |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한국과 일본은 고대부터 문화·역사·경제·정치·교육·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양국이 교류의 역사를 전개해오면서 한국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하는 불행한 과거를 경험해왔고 현재에도 양국관계에 있어 예리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양국의 역사인식 또는 상호 국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인식방법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인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전후한 일본인들의 한국관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로 변모하고 더 나아가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된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정형화되었다. 당시 한국에 대한 일반적 담론은 전근대성, 후진성이라는 단어로 대표된다. ‘문명화된 상태(civility)=유럽의 습관과 풍습’을 기준으로 ‘야만’과 ‘문명’에 인종과 민족의 유형을 확정했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사상은 당시 일본사회에 널리 확산되었으며[1] 당연히 한국인식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한국에 대한 일반적 담론이 당시의 일본교과서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며 교과서 내용은 당시 일본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사회나 국가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가치체계 그리고 법적 틀 안에서 서술되는 경향이 있으며 교과서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식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근대시기 일본의 한국인식을 당대의 한국담론과 교과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 관한 담론은 근대잡지,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비롯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적 특징을 주제로 발행된 각종 서적 등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 가운데 교육 잡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시기 교육 잡지는 교육정책과 학교교육 등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교원과 교육학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였다[2].

교육 잡지에 수록된 다양한 정보는 교사에게 있어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고, 수업을 위한 참고자료로서도 활용되었다. 『教育時論』, 『教育公論』, 『教育界』 등의 교육잡지에 발표되는 기사의 필자들은 정·관·경제·언론·교육·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지식인들로 대부분으로 한국에 관한 담론을 주도해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당시 담론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서술을 통해 근대시기 일본의 한국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일본의 한국인식의 원형을 되짚어보고 현재에도 간헐적으로 표출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원을 탐색함과 동시에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교과서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선행연구

근대시기의 일본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그 가운데 황국사관이 한국사를 어떻게 변형시켜 서술되었는지에 관한 연구[3][4], 교과서에 게재된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5][6], 교과서를 통한 한국의 표상에 관한 연구[7][8]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교과서 서술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검증하여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교과서 서술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에 관해 분석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게재된 시각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에 대한 후진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교과서 서술 및 삽화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담론분석 및 담론과 교과서서술과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한편, 근대잡지에 발표된 한국관련 기사에 관한 연구도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9][10]. 그러나 이들 연구들도 잡지 기사의 내용에 중점을 둔 연구로 각 필자들의 한국관과 기사를 연계시켜 분석하거나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한국 담론에 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담론과 당시 일본 교과서 서술과의 상호연계에 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근대시기 일본사회에

서의 한국에 대한 담론을 교육 잡지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 동시에 당시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련 콘텐츠와의 연계성을 밝힘으로써 당시 한국 인식에 관해 통합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일본은 1904년부터 소학교에서 국정교과서제도를 실시하였고, 당시 소학교의 의무교육 연한은 4년이었다. 1907년 3월 발표된 개정 소학교령에 의해 의무교육 취학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다.

시대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1900년 전후 아동이 소학교 교육을 받는 것이 사회적 관행이 되었다. 1891년 학령아동의 취학율이 50%를 우회하였지만, 1907년에는 97%에 이르게 되었다[11]. 이처럼 1900년대부터 소학교 취학률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교과서도 국정제도에 의해 학생들이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

소학교용 국정교과서 가운데 수신, 국어, 역사, 지리교과서는 국민사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GHQ에 의해 이들 교과서가 회수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정교과서제도가 실시되었던 1904년부터 1945년까지의 국어, 역사, 지리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와 민족에 관한 서술 및 삽화들이 수록되어 있어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한편, 이들 교과서의 한국관련 서술 및 시각자료를 통해 나타난 한국인식이 당시 일본사회에서 형성된 한국 담론과의 연계성을 밝히기 위해 교육 잡지를 통해 발표된 한국관련 기사와 교사용 지도서도 연구대상에 포함된다. 교과서 지도서는 교과서와 담론과의 중계 역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분석대상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국관련 내용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재를 살펴보았다. 국어교과서에는 한국의 풍속, 서울과 시골의 모습 속에서 한국적 특징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된

한국 역사가 다루지고 있다. 그리고 지리 교과서는 자연·인문지리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지리 요소에는 한국인의 기질 및 풍습, 삶의 모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국관련 소재들을 ‘민족성’, ‘역사인식’, ‘사회상’으로 구분하여 교과서 서술과 지도서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 잡지를 통해 발표된 관련 기사와 서술내용을 연관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관련 담론과 교과서의 한국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근대시기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한국담론과 교과서의 한국관련 콘텐츠와의 관계

1. 민족성

한국인의 민족성에 대해서는 열등민족으로 다루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음에는 한국 민족성에 대해 악덕, 미개, 무기력, 무능과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다루져 왔다. 이러한 담론은 한일 강제병합 이후 동화정책과 일선동조론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한국 민족성에 대한 담론이 변화되었다. 한국 강제병합의 중요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었던 ‘일선동조론’이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정적이었던 민족성 담론을 변용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인의 기질로서 취급되었던 결점은 선천적 요소가 아니며, 당시 한국의 악정(惡政)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한국인의 기질에 관해 교육 잡지를 통해 발표된 기사이다.

한국인은 취미도 갖고 있지 않으며 상하귀천 모두 백의를 입고 있다. 게으르며 노는 것만 생각하며 저축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다[12].

물론 태만한 기질이 일반적인 것은 사실이며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한국인 본래의 성질은 아니며 현재의 한국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무슨 이유로 한국인이 태만하고 태연한 거짓말이나 하는 인종이 되었는지에 관해서 말하면, 우선 조

선에서는 사유재산을 전혀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주:이후의 내용은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13]

위의 기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한국인에게 보이는 부정적 기질은 불합리한 사회체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민족성에 관한 담론은 교과서를 통해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학교용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에 관한 항목을 마련하고 민족에 관한 소항목을 두고 한국인의 기질 및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불결하다거나 나태하다는 설명은 가장 일반적인 묘사이며, 문명의 정도가 낮고 교육이 보급되지 않아 미신을 따르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있다.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의 사람들은 목욕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태하며 늦잠과 낮잠을 탐한다[14].

체격·용모는 내지인(필자주:일본인을 의미)과 매우 유사하지만 문화의 정도가 낮고, 교육이 일반에게 보급되지 않아 미신을 많이 따른다[15].

조선민족은 대부분 문명의 정도가 낮지만, 최근 교육의 보급에 힘을 쏟고 있어 각종학교 설비가 갖추어지고 있으며 인문이 점차 진보하고 있다[16].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교과서에는 민족적 기질이 악정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정치의 부패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실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각도(各道)에는 시찰사를 두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명령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으며 지방관은 뇌물을 탐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인민의 생활은 적빈여세(赤貧如洗)와 같다[17].

이와 같은 민족성에 대한 평가는 문명사관의 척도에서 바라보는 식민지 국가의 민족에 대한 전형적인 시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기질이 형성하게

된 원인을 한국 정치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일 강제병합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시노 사코조(吉野作造)는 당시 일본사회에 만연해 있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 관해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요시노는 강제병합 이후 한국을 직접 시찰하고 일본의 식민지경영과 한국인들의 실상을 조사하여 『滿韓을 시찰하여』(원제:滿韓を視察して)를 발표한 바 있다. 문화-그가 의미하는 문화도 역시 서구문명이라는 한계는 있지만-에 접하게 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열등하다고 판단하고 일본인과 전혀 다른 열등민이라고 단정하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18].

그러나 요시노의 이와 같은 시각은 이미 거대한 담론으로서 형성되어 있던 한국의 민족성에 대한 인식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 역사인식

앞 절에서 살펴본 한국의 민족성 담론과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한국 역사를 둘러싼 근대일본에서의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민족성을 악정(惡政)과 연관시켜 규정하는 것은 역사의 전개에 대한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역사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정치능력, 국가의 발전능력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시기 일본은 메이지유신에 의해 기존의 무가계급에서 천황가로 지배권이 이행(利行)하게 되고 일본은 천황권의 강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에 따라 천황가의 정통성과 유래를 확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古事記』, 『日本書紀』의 신화부분과 설화부분은 국민에게 널리 보급되었고 이를 토대로 천황제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다[19].

고대부터 일본이 한국의 우위에 있었다는 관점은 양국의 역사를 논할 때 항상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강제병합 이후에는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학자를 비롯하여 사회 저명인사의 기고문이 각 분야에서 발표되었다. 강제병합의 정당성의 근원은 ‘진군(神功)황후의 삼한정벌’에 관한 신화이다.

‘진군(神功)황후는 『古事記』, 『日本書紀』 등에 기재

된 추아이(仲哀) 천황의 황후이며 추아이(仲哀) 천황이 한반도의 신라를 내주겠다는 신의 탁선(託宣)을 믿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후 황후 자신이 신의 탁선에 따라 한반도를 공격하여 신라를 항복시켰다는 내용이다.

한편, 한국이 일본에 문화를 전달했다는 역사에 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다음의 기사와 같이 일본의 문화 발달에의 공헌과는 별도로 일본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성가신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는 우리나라(필자주:일본을 의미)의 외교사상 가장 오래된 국가이며 고대에는 수목이 풍부하고 백은황금이 풍부한 나라로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유교, 불교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등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 공헌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제 이익이 되는 것은 적으며, (중략)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수백년 간 한반도는 실로 우리나라에게 있어 귀찮은 나라가 되었다[20].

이와 같은 한국 역사에 관한 담론은 일본의 이권을 방해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는 존재로까지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한국의 국가운영 능력의 문제, 이로 인한 한국인의 불행, 더 나아가서 일본과 동양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발전·고착화되어갔다.

다음의 기사는 일본국정역사교과서의 편찬을 주도하는 역사학자로 알려진 기타 사다기치(喜多貞吉)가 발표한 것으로 그는 일본역사교육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발표한 다음의 기사에는 그의 한국에 대한 역사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우리나라(필자주:일본을 의미)는 고대부터 자주 희생을 감수하며 병력을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로부터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최근에는 청일·러일전쟁과 같이 두 번의 전쟁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결코 남의 토지를 침략하거나 자국의 강대함을 도모하는 야심은 없다. 그러나 한국이 견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녕을 해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어 도저히 이를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21].

그러면 국정일본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역사 인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교과서에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문화의 전래」, 「백제의 멸망」, 「임진왜란」, 「조선통신사」, 「정한론」,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강제병합」에 대해 서술되고 있다. 이들 주제로 서술된 한국에 관한 역사는 앞에서 살펴본 한국역사에 대한 담론들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진구황후의 삼한정벌」과 「문화의 전래」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지로부터 용감한 장병과 많은 군함이 부름에 응하여 집결하였다. (중략) 놀라고 당황한 신라왕은 ‘예로부터 들어왔던 일본의 배, 신국(神國)의 무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신라왕은 바로 황후를 맞이하러 나갔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표시로 반드시 매년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하였다[22].

오진(応神)천황 시대에 왕인이라고 하는 학자 등이 백제에서 도래하여 학문을 전하였다. 베짜기, 철제조 등의 기술자도 도래하여 우리나라가 점점 개화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진구황후의 은덕이다[23].

문명에 있어 한국이 일본보다 진보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견 일본문화의 열등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한반도로부터 문화가 전래될 수 있었던 것은 진구황후의 정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국가 간의 우위는 문화적 요소보다는 무력적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는 논리에서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 이후 점차 퇴보한 반면 일본은 발전을 거듭해나간 것을 대비시키는 논법을 사용함으로써 강제병합의 필연적 요소를 찾고 있는 것이다[24].

한편, 「백제의 멸망」과 관련해서는, 백제를 원조하기 위해 출병했지만 패배하게 되고 신라가 통일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삼한은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삼한의 이반(離叛)’이라는 표현으로 양국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용 지도서에는 ‘삼한을 통일시킨 신라는 일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당나라로 돌아갔다.’와 같이 지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25]. 이와 같은 서술은 한

국 역사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종속성을 나타내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청일전쟁」에 관한 서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음의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자.

(전략: 텐진조약에 관한 내용) 청국은 이후에도 조선을 속국처럼 취급하고, 청국에 의존하는 당이 점차 세력을 얻게 되었고 정치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민중에 의한 민란이 발생하였고, (후략)[26]

즉 청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한국이 청에 의존해온 결과가 내정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교사용 지도서에는 한국과 청의 관계가 일본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한국은 청에 의존만하는 수동적 존재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지도사항이 서술되어 있다.

조선에서의 소동, 우리나라에 대한 관계는 항상 청국이 배후에서 제약을 가하고 사주하는 것이 원인이며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동양의 평화, 한국의 보전(保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운의 발전을 방해하는 일이 많았다[27].

한편, 러일전쟁 승리에 따른 한국의 보호국화와 한일강제병합에 관한 서술에서 한국이 독립을 유지할 능력이 없고 이로 인해 동양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고 내정을 개선시키고 있지만 그 동안의 정치적 폐해로 인해 이를 제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과 인민의 복지를 위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병합을 추진했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당위성은 교과서 지도서의 주안점과 주의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주안점: 한일통합의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을 병합하고 조선이라 칭함/지도상의 주의점: 한국의 병합은 침략·약탈과는 다르며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알릴 것[28]

한국의 역사전개를 둘러싼 근대시기 일본 내에서의 담론은 상고사에 있어서는 진구(神功)황후의 신라정벌이라는 신화를 근거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주장하고 일본을 우위에 두었으며, 신라의 삼국통일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한국이 중국에 종속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근대에 이르러서도 청일전쟁을 통해 한국이 청국에 의존적이고 청국이 한국을 속국으로 여겼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양국관계는 일본과 동양의 평화의 위협요소로 비약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역사 전개로 말미암아 일본의 발전과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한일강제병합을 통해 우려요소를 해소하고 한국의 복리증진을 위함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담론은 당시의 국정역사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회상

근대기의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은 쇠국정책으로 인해 잘 알려져 있지 않던 한국을 관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문명사관에 근거하여 진근대적인 한국적 특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지배 이데올로기가 투입된 주류 담론은 후자가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상을 논할 때 정치, 경제, 문화, 풍속, 생활상, 교육 등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 주제들에 대한 개별적 담론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상호연관성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한국의 모습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일본인의 한국으로의 도항이 증가하는 1880년대가 되면 한국을 관찰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일본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발신하는 기회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급속하게 증가한 일본인에 의한 한국여행기록은 일본인의 한국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29].

그러나 이들 한국여행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인이 불결하다는 인상의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은 여행기에 머물지 않고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빈번히 발표되었다. 다음은 교육 잡지에 발표된 내용이다.

오늘날 조선인의 생활정도는 매우 낮으며 불결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천의 치수법(治水法)은 용의주도하지 못하며 오히려 방임의 수준으로 모두가 탁수를 마시고 있다. 소변과 대변이 섞여 있는 것이 보통이다. 경성 부근에서도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면 여기 저기 대소변을 발견할 수 있다[30].

이와 같은 인상은 이후에도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고정담론으로 고착화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도 등장하게 되었다.

교과서: 한국인은 그다지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부인이 옷을 자주 세탁하는 것은 감탄할 일이다[31].

지도서: 한인은 음식물과 가옥에는 지극히 무심하지만 의복의 청결에는 주의하는 풍습이 있다[32].

위의 서술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불결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풍습으로 의복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부인이 빨래하는 모습은 [그림 1]과 같이 교과서 삽화로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측 삽화를 보면 빨래하는 여성의 모습과 느긋하게 앉아 있거나 담배를 물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도 여성이며 남성은 거의 정적인 모습이다. 이와 같은 삽화를 통해서 노동력의 주요 원천은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조적으로 남성의 무기력함, 나태함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대부분 여성으로 이는 남존여비의 전근대적 관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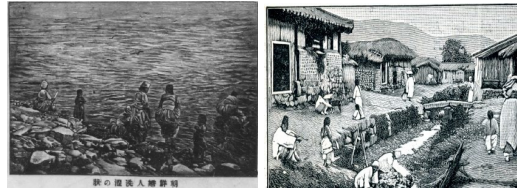


그림 1. 세탁하는 여성의 모습[33][34]

다음은 교육 잡지에 게재된 기사로 한국사회의 남존여비의 풍습에 의해 여성의 제약되고 순종적인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남존여비는 동양의 일반적 풍습이지만, 조선은 특히 그 폐해가 심하다. 부인은 좁고 어두운 안채라고 불리는 방에서만 틀어박혀 하루의 업무로서 재봉과 세탁만 하며 남자의 명령을 임금의 명령처럼 여기며 유유낙낙하게 따른다 [35].

한편,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으로 ‘조선말’이 자주 등장한다. 다음은 교과서에 묘사된 ‘조선말’과 관련된 풍경이다.

남성이 관모를 쓰고 끈을 길게 늘어뜨린 채 조선말을 타고 시골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 마치 옛날 사람을 만난 것 같다[36].

짐을 실은 조그마한 조선말이 지나간다. 가로수 그늘에 큰 짐을 머리에 이고 있던 여성이 쉬면서 땀을 닦고 있다 [37].

시장에서 돌아오는 조선말이 소란스럽게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석양이 은은하게 남아있는 하늘에는 기러기 떼가 날아가고 있다[38].

이와 같은 교과서 서술은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시기에 있어 ‘말’은 시대에 뒤쳐져있는 이미지를 형성시키기도 한다. 이는 일본이 서양국가가 비 서양국가에 투사한 차별적 시선을 차용하여[39] 한국의 전근대적 요소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림 2. 말을 탄 남성의 모습[40]

[그림 2]의 왼쪽 삽화는 교과서에 게재된 것이며 오른쪽 삽화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대량으로 제작한 조선여행 팸플릿의 표지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일본인을 위하여 관광 팸플릿을 제작하여 한국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사진을 싣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사진이나 엽서의 이미지와 유사한 형태가 많다. 사진에 의해 형성되었던 한국의 이미지는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 한국의 풍속을 묘사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양한 계층의 이미지와 문화요소들이 있었지만 노동과 관계된 서민층의 생활상이 한국의 대표적인 풍속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III. 결론

이글에서는 근대시기 한국에 대한 일반적 담론이 당시의 일본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폈다. 이를 위해 민족성, 역사인식, 사회상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교육 잡지를 중심으로 각 주제에 관해 형성되었던 담론, 이들 담론들이 투영된 교과서 서술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각 주제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면, 우선 민족성에 관해서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가 문명사관의 관점에서 식민지 국가의 민족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일본도 역시 한국인에 관해 유사한 관점을 보이고 있었다. 비록 한일 강제병합 이전에 형성되었던 악덕한 민족이라는 인식은 병합 이후 한국의 정치 및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부정적 기질이 형성되었다는 담론으로 변형되지만 '유럽의 습관과 풍습'을 문명화의 척도로 삼았던 당시의 일본에서는 한국인에 대해 여전히 문화의 정도가 낮다는 인식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인식이 기반이 된 주류담론은 교과서 서술에서도 유사한 관점에서 서술되

고 있었다.

이처럼 부정적 민족성이 형성되게 된 원인을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역사 전개를 둘러싼 담론과도 연관된다. 일본은 고대부터 '진구(神功)황후의 삼한정벌'에 관한 신화에 근거하여 한국에 대한 우위적·지배적 관점을 설정했다. 이후의 신라의 삼국통일을 기점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이반(離叛)'과 '중국으로의 종속'으로 한국 역사의 전개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역사를 수동적, 타율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결국 이와 같은 무능한 국가운명으로 인해 일본과 동양의 평화를 위협받게 되고 결국은 병합에 이르렀다는 것이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전파하고자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며, 한국 역사를 둘러싼 담론은 교과서와 지도서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다.

일본이 한국사회를 평가하는 척도는 서구식 문명화였으며 이는 제국주의 국가의 시각이기도 했다. 따라서 일본은 당시 한국사회의 모습을 문명·문화의 정도가 낮은 전근대적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로 한국의 서민층의 풍속을 담은 사진, 엽서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유사한 이미지의 복제를 통해 전근대적 이미지가 고착화, 확산되었다. 그리고 교과서 서술과 삽화에도 같은 시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상의 고찰들을 종합해보면, 근대시기 한국에 대한 담론은 근대국가로 탈바꿈한 일본의 자신감과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된 일본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담론은 교과서와 지도서를 통해서도 재생산되고 있었다.

근대시기 일본 교과서 콘텐츠와 당시의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지만, 당시 식민지였던 타이완, 사할린, 남양군도 등에 관한 인식과의 비교 고찰도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서구 국가에 대한 인식도 함께 비교함으로써 근대일본의 대외인식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한국이 어떤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논지의 논리적 전개가 가능하겠지만, 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후속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 [2] 小林優太, “教育とは何か-教育辭典類・出版統計資料・教育ジャーナリズム史研究の検討を通して-”, *名古屋大學大學院發達科學研究科教育科學專攻教育論叢*, 第52号, p.41, 2009.
- [3] 윤소영, “일제강점 초기 한·일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국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6호, 2010.
- [4] 박걸순, “일본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한국사 관련 내용의 사학사적 검토:국정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6호, 2001.
- [5] 신수경, “일제강점기 지리교과서의 삽화연구 -내재된 이데올로기와 표현방식의 변형-,” *미술사논단*, 제29호, 2009.
- [6] 박소영 외, “근대 일본지리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일본의 한국인식 -서양인의 기록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2014.
- [7] 박삼헌, “고등소학독본(1888-1889)을 통해 본 근대 일본의 심장지리,” *일본학*, 제39호, 2014.
- [8] 박소영,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문화 콘텐츠 변화 양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2013.
- [9] 최혜주, “잡지 『朝鮮及滿洲』에 나타난 조선통치론과 만주인식:1910년대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2호, 2010.
- [10] 최혜주, “잡지 『朝鮮』(1908-1911)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인식,” *일본근현대사연구*, 제45호, 2008.
- [11] 海後宗臣·仲新·寺崎昌男, *教科書でみる近現代日本の教育*, 東京書籍, p.53, 2013.
- [12] 江原素六, “韓國の外觀と其教育に就て,” *教育公報*, 300, 1905.(출처문헌:近代アジア教育史研究會, *近代日本のアジア教育認識・資料編 [韓國の部] 第1卷*, 龍溪書舎, pp.350-351, 1999.)
- [13] 宇野重喜, “朝鮮教育及び教育者の態度:朝鮮人の本質,” *教育實験界*, 27-1, 1911.(출처문헌:近代アジア教育史研究會, *近代日本のアジア教育認識・資料編 [韓國の部] 2卷*, 龍溪書舎, pp.70-71, 1999.)
- [14] 山上万次郎, *最新中學地理教科書-外國之部 上卷一*, 大日本圖書, p.21, 1902.
- [15] 中目 覺, *改訂新編日本地理教科書*, 三省堂, pp.144-145, 1914.
- [16] 山崎直方, *普通教育日本地理教科書*, 東京開成館, p.159, 1919.
- [17] 山上万次郎, *전개서*, p.22.
- [18] 吉野作造著·松尾尊允編, *中國·朝鮮論*, 平凡社, 1980.
- [19] 及川智早, “神功皇后伝承の近代における受容と変容の諸相-繪葉書・引札というメディアを中心に-,” *國語學研究(早稻田大學國文學會)*, 148卷, p.1, 2006.
- [20] “對韓策,” *教育時論*, 809, 1907.(출처문헌:近代アジア教育史研究會, *近代日本のアジア教育認識・資料編 [韓國の部] 1卷*, 龍溪書舎, p.150, 1999.)
- [21] 喜多貞吉, “韓國の併合と國史の教育,” *教育界*, 9-12, 1910.(출처문헌:近代アジア教育史研究會, *近代日本のアジア教育認識・資料編 [韓國の部] 2卷*, 龍溪書舎, p.249, 1999.)
- [22] 文部省, *初等科國史上*, 1943.(출처문헌:海後宗臣,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20卷 歴史(三)*, 講談社, p.254, 1978.)
- [23] 文部省, *尋常小學日本歴史 上卷*, 1920.(출처문헌:海後宗臣,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19卷 歴史(二)*, 講談社, p.628, 1978.)
- [24] 윤소영, “일제강점 초기 한·일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국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6호, p.336, 2010.
- [25] 國民教育研究會編纂, *尋常小學日本歴史教授新案 卷二*, 啓成社, p.104, 1910.
- [26] 文部省, *尋常小學日本歴史(下卷)*, 1935.(출처문헌:海後宗臣,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20卷 歴史(三)*, 講談社, p.106, 1978.)
- [27] 國民教育研究會編纂, *尋常小學日本歴史教授新案 卷二*, 啓成社, pp.362-363, 1910.
- [28] 國民教育研究會編纂, *전개서*, p.444.

- [29] 박양신, “明治시대(1868-1912)일본삽화에 나타난 조선인이미지”,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4호, p.317, 2005.
- [30] 梶茂策, “新領土の風俗習慣” 教育實驗界, 26-11, 1910.(출처문헌:近代アジア教育史研究會, 近代日本のアジア教育認識・資料編 [韓國の部] 2卷, 龍溪書舎, pp.59-61, 1999.)
- [31] 文部省, 尋常小學讀本 卷十一, 1910. (출처문헌:海後宗臣,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7卷 國語 (四), 講談社, p.224, 1978.)
- [32] 佐藤富三郎, 尋常小學讀本教授要鑑 第六學年用, 第三輯, 平井平治, p.75, 1910.
- [33] 中目 覺, 전게서, p.145.
- [34] 三省堂編輯所, 新訂改版中等教育 最新日本地理, 三省堂, p.179, 1931.
- [35] 梶茂策, 전게서, pp.59-61.
- [36] 文部省, 尋常小學讀本 卷十一, 1910. (출처문헌:海後宗臣,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7卷 國語 (四), 講談社, p.224, 1978.)
- [37] 文部省, 尋常小學國語讀本 卷九, 1933. (출처문헌:海後宗臣,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8卷 國語 (五), 講談社, p.96, 1978.)
- [38] 文部省, 尋常小學國語讀本 卷十, 1933. (출처문헌:海後宗臣,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8卷 國語 (五), 講談社, p.126, 1978.)
- [39]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 [40] 文部省, 尋常小學讀本 卷十一, 1910. (출처문헌:海後宗臣,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7卷 國語 (四), 講談社, p.224, 1978.)

저자 소개

박 소 영(So-Young Park)

정회원



- 2000년 3월 : 일본 국립오이타대학교 국어교육과(문학석사)
- 2003년 6월 ~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외국(일본)교과서분석, 일본인의 한국인식

정 예 실(Ye-Sil Jung)

정회원



- 1986년 9월 : 일본 관서대학교 문학연구과 교육학 전공(문학석사)
- 1992년 7월 ~ 2008년 8월 : 제주한라대학교 관광일본어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국제관광호텔학부 관광일본어과 교수

<관심분야> : 한일비교교육학, 이문화커뮤니케이션, 일본인의 의식구조